음악역사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양한 음악을 발전시킨 흑인음악의 역사를 배우고 대중문화 전반에 끼치고 있는 영향과 또한 지금 우리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파악해 볼 수 있도록 연대기와 장르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고 있는 현재 빛나고 있는 뮤지션 혹은 아티스트들은 모두 음악과 문화라는 역사의 나무 아래 매달려 있는 열매입니다. 그들도 뿌리에서부터 출발 하였기에 열매가 될 수 있듯이 이 수업을 통해 흑인음악의 장르와 특성 그리고 아티스트들을 알고 그 지식을 기반으로 더욱 많은 음악을 찾아듣고 감동 받고 멋진 아티스트가 되길 바랍니다.

#1. 흑인음악의 발단, 블루스(Blues)의 시작

블루스 주요 아티스트
B.B.King / Buddy Guy / Fredie King / Albert King / Stevie Ray Vaughan

15세기 아메리카 신대륙의 발견으로 [1]**플렌테이션 농장(Plantaion)**에 일한 노예들이 필요하였고 유럽에서 성행하던 노예무역이 아메리카대륙에 뿌리내리면서 흑인들은 노예로서 처음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 하게 된다. 흑인들의 아프리카 특유 리듬과 백인들의 유럽교회음악이 섞이기 새로운 스타일들이 탄생되게 되는데 처음엔 그들이 고된 노동을 달래고자 불렀던 [2]**필드 할러(Filed holler)**를 시작으로 Mississippi주의 Delta 지역에서 Blues이 발원하게 되었다. 델타 블루스(컨츄리블루스)로 불리며 대중음악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음악이다. 20세기 초반 New Orleans에선 [3]**Cleole**들이 Jazz를 발전시키고 [4]**랙타임(Ragtime)** 뒤에 [5]**부기우기(Boogie woogie)**로 발전하게 되는데 2차 세계대전 후에 고도의 산업화 공업화되던 미국에서 남부의 흑인들은 일자리를 찾아 북부의 대도시들로 유입되며 전자악기가 섞인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시카고 블루스(Chicago Blues)이며 혹은 City Blues, Jumping Blues, Urban Blues로 불리기도 하며 Rythm&Blues. [6]**로큰롤(Rock&Roll)**의 시초가 된다.

#2. 랙타임의 발전된 음악, 재즈(Jazz)

재즈 주요 아티스트
Charlie Parker/ Miles Davis / John Coltrane / Ella Fitzgerald / Bellie Holiday / Louis Armstrong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 루이지애나 주의 뉴올리언스에서 발생한 음악으로, 백인들의 악기와 음악적 틀에 흑인 특유의 감성이 혼합된 음악 장르이다. 연주를 할 때는 정형화된 음악이라기 보다는 즉흥적인 면이 강하다. 초기 음악교육을 받은 [3]**Cleole**들이 클래식과 블루스가 섞인 새로운 형태의 랙타임 음악을 만들게 되고 후대에 발전되어 재즈라는 음악으로 발전하게 된다. 시대의 흐름과 함께 변화해 온 연주 스타일에 따라 무슨 재즈, 어떤 스타일이라는 명칭을 붙이거나, 발생지의 지명을 붙여서 일컬어지고 있는데 ① 뉴올리안즈 재즈, ② 딕시랜드 재즈, ③ 빅 밴드 재즈, ④ 스윙(재즈), ⑤ 밥(Bop), ⑥ 모던 재즈, ⑦ 프리 재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3. 종교와 블루스의 만남, 가스펠(Gospel)

가스펠 주요 아티스트
Kirk Franklin / Yolanda Adams / Donnie Mcclurkin / Tye Tribbett

유럽에서 불리던 찬가가 클래식적인 틀을 벗어나 발전된 형태의 음악을 가스펠이라 칭하며, 흑인들의 블루스 음악이 주가 되는 블랙 가스펠과 백인들의 컨트리 음악이 주가 되는 서던 가스펠로 나뉘나 가스펠 하면 흑인들의 블랙 가스펠을 주로 지칭한다. 종교적인 늬앙스가 많으나 블랙 가스펠 같은 경우 또 다른 음악의 장르로 인정받으며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

1) 지주가 대규모의 땅을 소작농으로 일구는 농장
2) 노동요 call and response가 특징이며 이는 후에 Gospel과 현대 R&B에까지 영향을 끼친다.
3) 백인 주인과 흑인 노예 사이에 태어난 자식을 말하며, 일반 흑인노예들과 달리 교육을 받을 수도 있었다.
4) 피아노 독주의 음악이며 당김음의 사용이 특징적임.
5) 랙타임의 발전형으로 블루스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스윙을 기반으로 춤추기 좋은 음악
6) 1950년대 블루스와 재즈,컨트리,가스펠 등이 강한 비트와 섞여 만들어진 본격적인 팝의 시대를 만든 장르이다.

#4. 블루스 진화의 시작, 소울(Soul)

소울 주요 아티스트
Ray Charles / Aretha Franklin / Al Green / Diana Ross / Seal / Gallant /

솔 음악 (Soul Music)은 재즈 본래의 정신을 "Soul (솔, 소울, 영혼)"이라는 말로 표현한 데서 비롯된 말이다. 솔이 의미하는 바는 블루스의 정신이며, 또 직접적으로 나타난 것으로는 흑인의 교회 음악, 가스펠 등의 영향을 가끔 볼 수 있다. 1950년경의 흑인 음악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흑인들이 자란 대지의 소리, 피와 땀의 결정에서 나온 음악이라고도 한다. 미국 남쪽 지방에 거주하던 시골 흑인 노동자들이 동부, 서부, 북부 등 미국 전역으로 이주했던 기차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전파되기 시작했다. 그 시대의 흑인들이 북쪽으로 이주하여 공장 노동자 생활을 하게 됨에 따라 그들이 즐기던 음악이 세련된 도시 음악인 재즈 (Jazz)라는 음악과 융합을 이루게 되어 [7]**레이스 뮤직(Race Music)**이라 불리는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 내었다고 전해진다. 이렇게 새롭게 생겨난 음악은 리듬 앤 블루스 (Rhythm & Blues)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R&B는 이를 즐기는 백인과 흑인으로 나뉘게 되면서 더 많이 발전하게 된다. 백인들만을 위한 로큰롤 (Rock'n Roll)과 다른 하나는 흑인들만을 위한 솔 (Soul)이다. 솔의 음악적 특징은 록이나 발라드처럼 절정 부분에서의 호흡법보다는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호흡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해결하느냐에 따라 음악이 전하는 느낌이 다르다.

펑크 주요 아티스트
James Brown / Sly & the Family Stone/ Tower of Power / Earth Wind & Fire / Average White Band

#5. 제임스 브라운의 시대, 펑크(Funk)

1960대 중반에 Rock 음악이 부흥하게 되면서 Soul 음악이 쇠퇴하게 되었고, Rock 음악과 같이 강렬한 사운드를 지닌 Funk라는 장르가 만들어졌다. James Brown과 슬라이 앤 더 패밀리 스톤과 Earth Wind&Fire, 지미 헨드릭스, 조지 클린턴과 그가 이끄는 팔리아먼트와 펑카델릭 등이 선구자로 불리우며 후에 Disco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16비트에 단순한 화성과 멜로디에 리듬에 강조된 음악으로 70년대 인기를 끌며 [8]**P-펑크(P-Funk)**의 시대를 열었다.

#6. 시대와 사회적 배경, 블랙파워(Black Power)

한편 문화적으로 흑인들이 자주권과 자신들만의 뿌리를 찾는 운동(Movement)가 시발되는데 특히 상징적으로 1968 멕시코 올림픽 200m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한 Tommie Smith와 John Carlos가 Black Power salute라는 퍼포먼스로 살펴볼 수 있다. 미국 국가가 울려 퍼지는 동안 그들은 묵념하며 각기 검은 장갑을 낀 왼손과 오른손을 들었으며 가슴에는 “Olympic Project for Human Rights” 올림픽 배지를 달고 있었다. 후에 저항정신과 자주적인 문화 그리고 흑인권력(Black Power)은 하나의 문화 코드가 되었다.

모타운 레이블 주요 아티스트
Stevie Wonder / Marvin Gaye / Jackson5 / Boyz II Men

#7. 백인의 귀를 사로잡은 흑인음악, 모타운 레이블(Motown)

북부 최대의 공업도시였던 Detroit에서 Chuck Berry 나 Little Richard 같은 흑인 로큰롤 뮤지션의 음악 과 그 음악에 춤을 추는 백인들에게 자극을 받은 Berry Gordy Jr. 는 1959 Motown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백인들에게 팔리는 흑인음악을 만들기로 결심한다. 마빈 게이(Marvin Gaye), 스티비 원더(Stevie Wonder), 다이애나 로스(Diana Ross), 템프테이션스(the Temptations), 잭슨 5(Jackson 5), 스모키 로빈슨(Smokey Robinson)등등 수많은 스타들을 배출해 내며 흑인음악이 Race Music이 아닌 대중음악으로 그리고 흑인들의 지위 상승에 많은 기여한다.

디스코 주요 아티스트
Donna Summer / Bonny M / Bee Gees / Chic

#8. 빠르고 경쾌한 디름과 댄스뮤직의 조합, 디스코(Disco)

1970년대 후반 Disco라는 장르가 엄청난 인기를 얻기 시작하는데 이는 펑크 리듬에서 조금도 춤추기 쉽게 리듬을 간소화하고 쉽고 반복되는 멜로디 차용한다. 필라델피아 소울(Philadelphia soul) 필리소울로 불리는 세련된 소울음악에서 디스코는 시작되었으며 모타운도 역시 디스코의 흐름에 편승하였고 유명 락밴드들 조차 디스코 무드의 음악을 내놓기 시작했다.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던 디스코의 인기는 그 상승세에 비하여 빨리 쇠락하였다.

---

7) 1940년대 말 미국 중소도시의 흑인 사이에서 일어난 비트감이 강한 팝뮤직으로, 원래는 '레이스 뮤직(race music)'이라는 흑인 대중음악을 가리키는 차별적인 말로 불렸다. 흔히 R&B라고 부른다. 블루스에 비해 댄스비트가 강하고 멜로디도 대중적인 편에 속하며, 흑인 특유의 개성적인 가창과 연주가 가미된 것이 특징이다.

8) eorge Clinton이 이끌었던 Paliament의 앞글자 ‘P'를 본 따 만들어진 것으로 기존의 펑크에 비해 많은 전자악기사용과 과감한 코스튬이 특징이다

#9. 새로운 스윙을 만들다. 뉴 잭 스윙(New jack swing)

뉴 잭 스윙 주요 아티스트
Bobby Brown / Janet Jackson / TLC

1980년 후반에는 뉴 잭 스윙(New jack swing) 이라는 장르가 유행하게 되는데 스윙처럼 유연한 리듬에 새로운 장르라는 뉴(New)를 붙인 것으로 프로듀서 테디 라일리(Teddy Riley)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음악이다. 9)**TR-808**의 드럼소리를 상징적으로 사용하며 후에 아직까지 여러 음악(특히 Trap)에서 기조를 유지한다. 특히 마이클 잭슨과, 동생 자넷 잭슨이 두드러진 활동을 하였다.

힙합 주요 아티스트
Jay-z / Drake / Kanye West / Kendrick Lamar / Eminem / Dr.Dre / 50 cent / Nicki Minaj / Nas

#10. 음악을 넘어 문화가 되어버린 힙합(Hiphop)

1980년 중반부터 레이건정부의 경제위기로 Slum(빈민가)화가 가속되고 흑인과 스패니쉬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반정부적 성향, 기존의 음악과 문화와는 다른 거친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는 힙합뿐만이 아니라 음악 전반적 성향이 되었다. 여기서 Soul이라는 장르 또한 의미를 변화하기 시작하는데 흑인들의 연대의식과 동질감을 표현하는 단어로서의 소울이 정의되기 시작한다. B-Boy, Graffiti 등 거리의 문화가 뿌리내리며 힙합이라는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 G-Funk (웨스트코스트힙합을 중심으로 Dr.Dre가 완성시킨 장르이다 Gasta의 앞글자 'G'를 따 만들어졌다)
- Trap (미 남부의 하드코어 힙합의 진화)
- Boom-Bap (이스트코스트중심, 흔히 우리가 힙합으라 생각할 수 있는 음악의 전형)

등 수많은 세부장르들이 있으며 미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장르가 많다.
흑인들의 하위문화에서 출발하여 가장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문화가 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R&B 주요 아티스트
Boyz II Men / Usher / Chris Brown / The Weeknd / Mary J Blige / Mariah Carey / Brian McKnight

#11. Pop음악의 중심이 되다. 리듬&블루스(R&B)

1990년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R&B음악(컨템포러리 알엔비) 보컬중심의 음악이 중심이 되어 Mariah carey, Boyz2men, Whitney Houston등 가창력의 소유자들이 빌보드를 휩쓸게 된다. 가스펠적 요소가 짙으며 이 부분에서는 소울의 영향 또한 크다 할 수 있다.(개인적으로 대'가창'시대라 부른다) 뒤에 Neo soul, Urban등등 여러 장르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나오지만 이 역시 소울이란 장르의 시대적 흐름에 따른 변화이며 아티스들 역시 네오소울이라는 말 자체를 싫어한다. 소울적 요소에 Jazz, Latin, 그 외의 월드 뮤직까지 음악적 융합을 하며 하나의 스타일로 설명할 수 없는 광범위한 음악이 된다.

PB R&B(Pabst Blue Ribbon 팹스트 블루 리본)또한 요즘 트렌드의 알엔비 소울음악을 지칭하는 말이나 장르의 스타일보단 무드와 표현방식 등을 강조하기에 더욱 그러하다. 소위 10)**힙스터(Hipster)**문화의 한 축으로 볼 수 있으며 뉴잭스윙이나 디스코 알엔비의 다양한 특성이 섞여있다. 11)**라쳇(Ratchet)** 또한 새로운 장르들 중 하나다.
현재의 우리 음악은 모든 장르들이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있으며 위에 설명한 모드 스타일과 무드가 현재에도 그대로 복원되고 있다.(빈티지, 혹은 클레식이라 불리는 음악들)

9) 80년대에 롤랜드사에서 나온 드럼머신이며 지금은 단종되었다. POP,Hiphop,R&B 등 다양한 음악의 드럼사운드로 활용이 되었으며 지금까지도 힙합이나 트랩음악에서 사용 되고 있다.
10) 기존의 문화적 성향을 거부하고 자신들만의 독창적 문화를 공유하는 세대와 집단을 의미하나 그들 또한 패션,음악등 그들을 정의할 수 있는 소재들의 자기복제 성향을 보이며 결국 기성문화를 거부하는 신조류를 타고있는 세대를 의미할 수 있다.
11) DJ Mustard를 중심으로 단순한 멜로디 전개 댄서블한 플로우가 특징, 힙합과 알엔비의 경계가 없음